
빅웨이브 연구자 네트워크 연구방법론 워크숍 2회차(7/10)



일시: 2021년 7월 3일 - 9월 16일 (총 12회)
진행: 김규환, 고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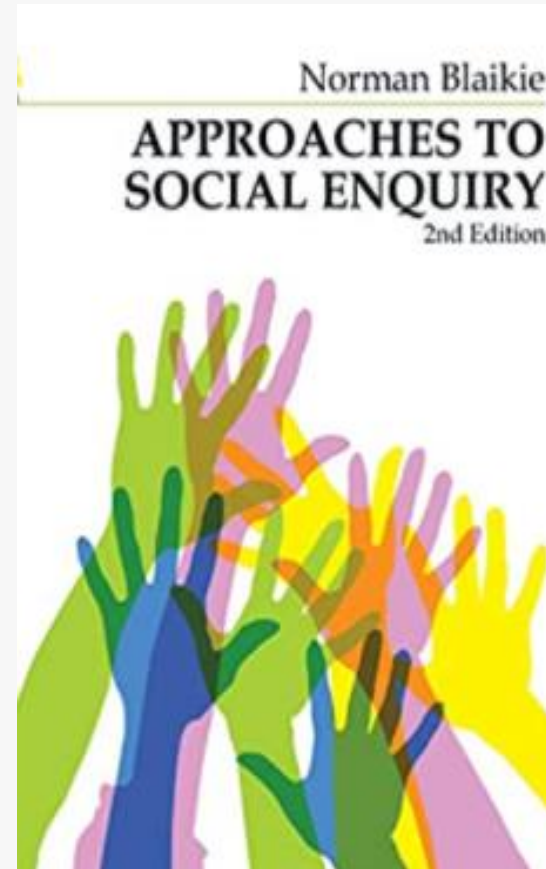
1. 사회연구에 필요한 선택

1) 연구 과제에 대한 선택

-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 연구 과제는 하나 이상의 연구 문제로 나눌 수 있음

2) 연구 문제에 대한 선택

- 연구 문제의 유형들 : 무엇(What), 왜(Why), 어떻게(How)
 - 어떤 종류의 계층들이 홍수 피해를 경험하는가?
 - 홍수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는 어떻게 되는가?
 - 왜 그런 계층들은 홍수 피해를 경험하는가?
 - 이들 계층은 홍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1. 사회연구에 필요한 선택

3) 연구 전략에 대한 선택

- 연구 문제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 4가지의 연구 전략
 - 귀납적
 - 연역적
 - 가추적
 - 역행추론적

4) 연구자의 입장에 대한 선택

- 외부자? 내부자?
- 전문가? 학습자?
- 사람들에 관해서?(전문가) 사람들을 위해서?(전문가이자 상담자) 사람들과 함께?(촉진자)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1)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법 및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가?

- 자연주의 : 자연과학에서 성공한 방법을 사회과학에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
- 부정주의(negativism) : 사회연구는 서술적 연구에 한정되어야 하며, 설명과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 역사주의(historicism) : 자연주의와 부정주의의 중간적 입장이지만, 자연과학 방법의 일부가 사회과학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입장
- 탈근대주의(post modernism) : 과학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이전 세기에 사회과학을 지배했던 활동과 동떨어진 활동을 옹호하는 입장

2) 자연과학의 방법은 무엇인가?

- 무엇이 과학적 방법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3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귀납적 전략 : 순수한 관찰에서 시작하고, 관찰을 통해 일반화 이론을 만들어내는 전략
 - 연역적 전략 : 잠정적 이론에서 시작하고,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관찰을 수행하는 전략
 - 가추/연행추론적 전략 : 관찰된 규칙성은 숨은 구조 혹은 기제를 만드는데, 이러한 구조 혹은 기제에 대한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그 증거를 찾아내는 전략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3) 주요한 딜레마

(1) 존재론적 딜레마

- 모든 사회적 상황에 단 하나의 사회적 실체만 존재하는가?

- '피상적인 실체론'과 '경험주의 인식론'은 모든 특정 맥락에 단 하나의 사회적 실체만 있다고 봄
 - ✓ 피상적인 실체론 : 외부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
 - ✓ 피상적인 실체론은 세계가 관찰가능한 원자론적 객체, 사건,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규칙성으로 구성되며, 객체는 구조나 힘 그리고 관찰 불가능한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상정
 - ✓ 경험주의 인식론 : 인간의 감각을 사용해서 지식을 생산한다는, 즉 지식은 우리 주변 세계를 관찰하기에서 나온다는 핵심적인 생각에 기초
 - ✓ 경험주의 인식론의 핵심 교의는 참인 분석적 진술 이외에는 우리가 세계에 관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경험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3) 주요한 딜레마

(1) 존재론적 딜레마

- 모든 사회적 상황에 단 하나의 사회적 실체만 존재하는가?

- '관념론적 존재론'과 '구성주의 인식론'은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함
 - ✓ 관념론적 존재론 : 외부 세계가 개인 정신의 창조물인 재현들로 구성
 - ✓ 관념론적 존재론은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실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실재한다고 간주하고 있음
 - ✓ 구성주의 인식론 : 지식은 외부 세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며, 실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
 - ✓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실체는 물리적 세계 및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의 조우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산물로 간주
- 단일한 실체만 강조하는 것과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의 차이는 연구 패러다임 간의 차이를 낳음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3) 주요한 딜레마

(1) 존재론적 딜레마

- 왜 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는가?

- 연구문제에 답하는 각각의 접근방법은 상이한 종류의 실체를 상정하고, 상이한 곳에서 답을 찾음
- 예를 들어, 조직 내의 낮은 직무만족도의 원인을 찾는 연구문제에서 각각의 접근방법은 아래와 같을 수 있음
 - ✓ 피상적인 실체론 : 직무만족과 임금사이의 연관성, 직무에 대한 자율성의 수준과 책임감 사이의 연관성
 - ✓ 관념론 : 참여자들이 처한 작업상황의 여러 가지 사회적 구성요소를 탐구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3. 주요한 딜레마

(2) 인식론적 딜레마

- **사회적 참여자들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상정하는 사회적 실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가?**
 - 경험주의 인식론은 "외부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인간이 그 세계를 직접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음
 - 후기에 이 학파, 개념적 실체론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
 - ✓ 즉, 어떤 사물에 관한 관념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을 인식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3. 주요한 딜레마

(2) 인식론적 딜레마

- **사회적 참여자들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상정하는 사회적 실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가?**
 - '관찰'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관찰은 이미 오염되어 있음
 - ✓ '자신의 문화 속에서 사용하는 일상언어'와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연구 패러다임의 개념' 모두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결정함
 - ✓ 이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가 있음
 - ✓ 대안 1 : 시행착오과정을 통해 개념과 견해를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세계를 관찰. 이 경우 그 시행착오과정이 언제 종료될지, 그리고 실체와 개념이 정확하게 부합될지 알기 어려움.
 - ✓ 대안 2 : 개념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실체에 어떠한 형식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 이 경우 초기의 개념 선택이 최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3. 주요한 딜레마

(2) 인식론적 딜레마

- 사회연구가 객관적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객관성의 성취가 사회세계에 대한 참인 해명으로 이어지는가?

- 객관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음

- ✓ 인식론적 객관성: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참인 서술을 만들어내는 것
- ✓ 방법론적 객관성: 가설·이론을 개발·채택·기각하는 비자의적 및 비주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
- ✓ 통상적으로 방법론적 객관성을 성취하면 인식론적 객관성도 성취될 것으로 상정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3. 주요한 딜레마

(2) 인식론적 딜레마

- 사회연구가 객관적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객관성의 성취가 사회세계에 대한 참인 해명으로 이어지는가?
 - 연구의 여러 단계에서 가치는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수한 사실이란 있을 수 없다'는, 그리고 '모든 관찰은 이론부과적이므로 해석을 포함한다'는 입장도 있음
 - ✓ 이것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며 수정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 한편, 관찰이 이론부과적이라는 견해는 '연구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공유한 가정·해석의 산물'이라는 주장으로 발전하였음
 - ✓ 즉, 지식은 어떤 관점에 입각한 견해이며, 그 관점은 과학공동체가 공유한 세계관이라는 것을 의미
 - ✓ 여기에서 '지식은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주장이 도출될 수 있으며, 무엇을 사회세계의 사실로 인정하는가는 상호주관적인 합의의 사안



2. 사회연구에서 딜레마

3. 주요한 딜레마

(2) 인식론적 딜레마

- 사회연구가 객관적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객관성의 성취가 사회세계에 대한 참인 해명으로 이어지는가?
 - 롱기노(Helen E. Longino)는 연구가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
 - ✓ 배경적 믿음·가정은 사회적 통제대상이며, 비판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수정 또는 포기할 수 있음
 - ✓ 다만, 객관적인 방법을 기초로 어떠한 이론·가설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학공동체가 비판적으로 성취한 동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임
 - 자연과학의 맥락에서 제시된 롱기노의 견해와 달리,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사회과학의 맥락에서 “가치에서 시작하는, 즉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 위치한 형태의 객관성이 가능하다”고 주장
 - ✓ 윌리엄스는 객관성을 “객체의 속성들에 관한 진리를 찾는 목적적 탐색”으로 정의
 - ✓ 또한, 객관성도 진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



3. 연구 전략

- 연구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위해 연구 전략을 채택
- 연구전략은 연구논리로 볼 수 있으며, 연구문제의 해결 혹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귀납적** : 다수의 단칭 진술에서 시작하여, 일반 진술이나 보편 진술로 결론을 맺음
 - ✓ 귀납 논증의 결론은 전제, 즉, 관찰된 사례를 넘어서므로써 지식을 확장
 - **연역적** : 최소 하나의 일반 진술이나 보편 진술인 전제에서 단칭 진술인 결론으로 나아감
 - ✓ 연역 논증의 결론은 전제보다 적은 내용을 포함
 - **가추적(abduction), 역행추론적(retroduction)** : 아리스토텔레스의 환원(Reduction)에 기인
 - ✓ (귀납의 한계) 개별 관찰에서 보편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은 보편성이 개별 전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므로 논리적 정당화가 될 수 없음
 - ✓ (연역의 한계)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던 가설연역법은 객체를 탐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논증의 타당성에 입각하여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
 - ✓ 그러나 가추는 현상에서 실체로 넘어가는 설명의 고안이며,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실체의 영역으로 추리해 나아가는 창조적 도약을 포함



3. 연구 전략

- 예를 들어,
 - 나는 흰 백조를 본다(출발점) → 모든 백조는 희다(귀납) → 다음에 볼 백조도 희 것이다(연역)
 - 이러한 것은 선형으로 이어지는 경험 수준의 추론
 - 나는 흰 백조를 본다(출발점) → 백조의 세포 DNA 구조는?(가추) → 검은 백조는 상이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역행추론)
- 가추, 즉 “왜 발생했을까?” “발생시키는 시스템은 뭘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가추와 역행추론은 연역과 귀납을 안내하는 전제들의 형성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
- 이러한 방식들은 논리적 사유 속에서 복잡한 회로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므로 숏한 실패를 거듭



4. 고전적 연구패러다임

1. 실증주의(Positivism)

- 19세기 실증주의는 단순한 과학철학이 아닌 “과학의 성취를 찬양하는 일반적인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자연주의 명제”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실증주의 특징
 - 현상론(Phenomenalism) : 관찰자의 ‘지각’에 기초한 것만을 지식으로 취급
 - 명목론(Nominalism) : 과학적 설명에 사용되는 모든 추상적 개념들은 경험(관찰)에서 도출
 - 원자론(Atomism) :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을 관찰의 대상으로 간주
 - 일반법칙(General laws) : 과학적 이론을 법칙적인 진술로 간주하며, 그러한 법칙을 확립하는 것을 과학의 목표로 간주
 - 가치판단과 규범적 사슬 : ‘사실’과 ‘가치’는 구분되어야 하며, 가치는 지식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간주
 - 검증(Verification) : 관찰 가능한 일의 상태를 준거로 하여, 과학적 법칙을 검증
 - 인과관계(Causation) : 자연 속에서 인과관계는 관찰될 수 없고,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식의 ‘사건들 사이의 규칙성이나 항상적 결합’만을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



4. 고전적 연구패러다임

1. 실증주의(Positivism)

- 윌리엄 오드웨이트(William Outhwaite)는 실증주의를 세 가지 종류로 제시했음.
 - 최초의 실증주의
 - ✓ 모든 과학적 지식은 관찰에서 도출한 인과관계에 기초한다고 봄
 - ✓ 모든 과학은 수학을 기초로, 그 위에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맨 꼭대기에 사회학이 자리하는 위계를 구성
 - ✓ 단, 하위의 과학법칙이 다루는 실체들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회적 실체', 즉 '다른 과학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
 - 논리실증주의
 - ✓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개념·명제는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
 - ✓ 상위의 과학개념·명제는 하위의 과학개념·명제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
 - 과학철학의 표준적 견해(standard view)
 - ✓ '모든 과학은 보편법칙·일반화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라고 주장



4. 고전적 연구패러다임

2.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

- 비판적 합리주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의 배후에 있는 논리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
- 이것은 이론을 '실체'에 비추어 시험하는 것으로서 시행착오라는 비판적 방법에 기초
 - 이 방법은 가설의 방법(method of hypothesis), 가설연역적 방법(hypothetico-deductive method), 반증주의 방법(method of falsificationism)으로 알려져 있음.
- 비판적 합리주의는 '순수한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실증주의'의 '경험주의 인식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때로는 후기(탈)실증주의(post-positivism)라고도 불리우고 있음



4. 고전적 연구패러다임

3. 고전적 해석학(Classical Hermeneutics)

- 해석학은 17세기 독일에서 출현
- 처음에는 개신교 학자들이 성직자들에게 성경 주해(주석) 안내를 하기 위한 성경해석교본을 가리켰음.
- 18세기에는 합리주의가 나타나면서 성경을 '계몽화된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만드는 해석이 등장했음
-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의 해석학적 순환
 -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해석학을 '언어로 구성된 모든 언명을 이해하려는 과학'으로 보았으며, 이는 일반적 해석학(general hermeneutics)으로 알려져 있는 근대적 해석학의 기초를 제공



4. 고전적 연구패러다임

3. 고전적 해석학(Classical Hermeneutics)

-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의 생생한 경험의 이해
 - 딜타이는 인간행위에 대한 연구는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는 이해방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
-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순수한 의식
 - 후설은 해석학에 필적하는 지적 전통인 현상학(phenomenology)을 통해, ‘현상’이라는 용어는 의식적인 개인의 지각이나 의식 속에서 주어지는 것, 또는 그 속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봄
 - 현상학은 의식의 현상들을 기술하고 그 현상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서술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짐
-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양식으로서의 이해
 - 하이데거는 자신의 스승(후설)이 일상세계의 개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보통사람들의 이해를 파악해야 하며 그러한 이해가 인간 존재의 기초라고 주장



4. 고전적 연구패러다임

4. 해석주의(Interpretivism)

- 막스 베버(Max Weber)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패러다임
- 인간 행동 중 '의미 있는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패러다임
- 해석주의는 해석학과 현상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반자연주의, 반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등으로 특징지어짐
- 해석주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재)해석하는 데 끊임없이 관여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세계는 연구자가 접근하기 전에 이미 해석되어 있음
- 의미 있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베버(Max Weber)의 합리적 모델
 - 베버는 해석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며, 인과적 설명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
 - ✓ 따라서, 베버의 관점은 해석주의적 접근과 실증주의적 접근을 혼합했다고 볼 수 있음
 - 베버에 따르면, 행위가 사회적 행위로 간주되고 사회과학자의 관심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의 활동을 겨냥해야 함



5. 현대의 연구패러다임들

- 현대적 연구 패러다임은 실증주의와 비판적 합리주의에 도전하며 고전적 해석학 또는 해석주의를 사용하거나 기초함
- 비판이론(Critical Theory), 일상생활방법론(Enthnomethodology), 사회적 실체론(Social Realism), 현대 해석학(Contemporary Hermeneutics), 여성주의(Feminism) 등
- 비판이론
 - 비판이론은 1930년대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가 확립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밖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음
 - 이 학파는 ‘이성’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잠재력’이며, ‘이성’의 사용을 통해 ‘기존 사회를 비판·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
 - 인간은 ‘자유로운 자발적 행위주체’로서 사회가 소외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창조·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



5. 현대의 연구패러다임들

-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2세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다루는 주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이한 경험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탐구논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자연과학은 직접 관찰에 기초하는 '감각적 경험(sense experience)'을 사용
 - 사회과학은 사회적 행위자의 의사소통에서 도출된 의미의 이해에 기초하는 '의사소통적 경험(communicative experience)'을 사용
 - 공유한 문화적 의미의 틀 안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은 대화적(dialogic)이라고 봄



6. 양적연구 vs 질적연구

- 양적 연구자의 반응

- 물의 수위라든지 해변으로부터 배의 거리 등 수치 보고
-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대 묘사
- 땅의 지형 묘사
- 높은 언덕, 작은 배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작은 막대기들과 같이 사물의 크기나 규모 묘사

- 질적 연구자의 반응

- 낮 동안 배에서 낚시를 하다가 지금은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쉬고 있을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를 나눔
- 빛과 어둠의 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 사람들, 해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사진에 없는 것을 이야기 함
- 일상적이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물상의 동요 등을 봄





6. 양적연구 vs 질적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패러다임 토태		실증주의 경험주의	자연주의 해석주의 구성주의
존재론	실체의 본질	연구자와 분리된 단일의 객관적인 현실 (객관적, 유형적, 단일, 부분적, 쪼갤 수 있는)	경험으로부터 인식되는 다양한 현실 (사회적으로 구성, 다중적, 전체적, 맥락적)
	의미	불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따라 시간과 상황마다 다름
인식론	생성지식	보편적, 시간에 비제약적, 맥락에 상관없음	특수적, 시간 제약적, 맥락 의존적
	연구자의 위치	분리되고 객관적인 연구자 (객관적, 이원론, 분리)	참여자와 상호작용하는 연구자 (주관적, 상호작용적, 협력적)
가치기반		가치중립적, 편견배제	연구자와 참여자는 필연적으로 가치 함축적
궁극적 목적		설명, 예측	이해